

『The Korea Magazine』의 「한국에서 이름난 여성들」 연재물에 관한 연구

최 윤 희
(경희대학교)

I . 머리말

『The Korea Magazine』은 1917년 1월부터 1919년 4월까지 매월 1회 1일, 총 28회에 걸쳐 발간한 월간 영문 잡지이다. 이 잡지에 대한 그간의 논의는 주로 한국교회사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20세기 초 다른 영문 잡지인 『The Korean Repository』과 『The Korea Review』에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The Korea Magazine』는 부분적으로 언급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The Korea Magazine』에 대한 논의는 소략한 면이 없지 않다.¹⁾

최근 이 잡지의 편집자였던, 한국학에 영향을 끼친 게일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면서 『The Korea Magazine』이 문화와 문학 연구 텍스트로서 언급되기 시작했고²⁾ 서양인이 바라 본 한국 여성인식을 탐색하고자 한 연구는 『

-
- 1) 김봉희, 『한국 기독교 문서 간행사 연구』, 이화여대출판부, 1987; 해리 로즈 지음, 『미국 북장로교 한국 선교회사』 1, 최재건 옮김, 연세대출판부, 2009; 류대영, 「국내 발간 영문 잡지를 통해서 본 서구인의 한국 종교 이해 1890~1940」, 『한국기독교와 역사』 26,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Hong, yi-sup Litt. d. 『Korean Studies Abroad, Korea's Self-Identity』, Seoul, Korea:Yonsei University Press, 1973.
 - 2) 황희영, 「James Scarthd의 韓國學」, 『한국학』 8, 영신아카데미, 1975; 김봉희, 「게일(James Scarth Gale, 기일(奇一)의 한국학 저술활동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

The Korea Magazine』이 지닌 다양한 면모를 탐구할 수 있도록 논의의 방향을 전환시켰다.³⁾ 또한 출판 의도와 지향, 구성 체제, 자료 현황을 꼼꼼하게 정리한 문헌적 연구는 『The Korea Magazine』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⁴⁾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The Korea Magazine』에 대한 연구는 이제 초보적 단계라고 할 수 있다. 『The Korea Magazine』은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선교적 목적에 온전히 지향을 둔 것은 아니다. 선교 이상의 것을 담아내려 하였다. 이에 이 잡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학적 양상과 풍부한 문화적 현상들이 면밀하게 탐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The Korea Magazine』의 연재물에 관심을 갖는다. 우선 『The Korea Magazine』이 잡지라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 한 사람의 글이 빠른 시간에 다수의 독자에게 소통된다는 점, 어떠한 연유에서든 연재물은 기획된 것이라는 점, 이를 통해 그들이 한국인에 대해 그리고 한국인의 문화적 요소를 어떻게 수용하고 인식했는가를 탐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II. 『The Korea Magazine』과 연재물

『The Korea Magazine』를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1918년 1월의 잡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구], 1988; 이상현, 「제임스 게일의 한국학 연구와 고전서사의 번역 - 게일 한국학단행본 출판의 변모와 필기, 야담, 고소설의 번역」,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이상현, 「<춘향전> 소설어의 재편과정과 번역 -게일(James Scarth Gale) <춘향전> 영역본(1917) 출판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30,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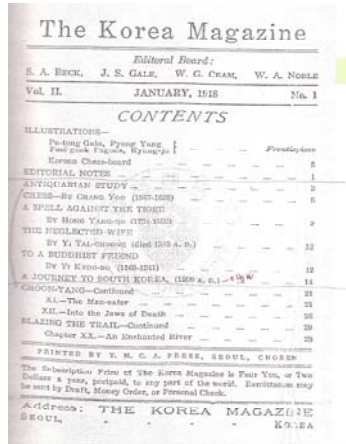
3) 서재영, 「19세기말 ~20세기 초 개신교 선교사들의 영문 잡지에 나타난 한국여성 인식」,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14.

4) 정혜경, 「『The Korea Magazine』의 출판 상황과 문학적 관심」, 『우리어문연구』 50, 2014.

이 논문에서는 『The Korea Magazine』의 자료를 한국문학, 어학, 기행, 민속, 선교/우편/교육, 기타 등 주제적으로 분류하고, 이 잡지의 출판 의도가 문학적 지향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림1] 앞표지



[그림2] 목차



[그림3] 뒤표지

[그림1]은 잡지의 앞표지이다. 상단에 잡지명 “The KOREA MAGAZINE”를 표기하였다. 그 아래 인가(認可) 상황과 발행(發行) 상황을 표기하였는데, 윗줄의 “大正 六年 一月 六日 第三種 郵便物”은 이 잡지의 인가 상황을 나타내고, 아랫줄 “大正 七年 一月 一日 發行(每月一回一日發行)”의 표기는 1918년 1월호의 발행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그 아래 앞표지 중앙에는 그 달의

중요한 기사 5~6개의 제목들이 놓인다. 하단에는 발행 “월 연도”를 표기했다. [그림2]는 목차로 맨 머리 잡지명 아래, “Editorial Board”란에 S.A.BECK, J.S.Gale, W.G.CRam, W.A.Noble 편집인 네 사람을 명기하고 있다.⁵⁾ 편집인들 아래로 “권, 월, 연도, 호수” 순서로 표기한 후 잡지의 내용목차를 두었다, 내용목차 아래 “PRINTED BY Y.M.C.A PRESS, SEOUL, CHOSEN”라고 인쇄소를 표기한 후, 가격과 주문 방법 등에 대해 써 놓았다.⁶⁾ 아래에는 ADDRESS: THE KOREA MAGAZINE SEOUL KOREA라고 주소를 표시했다.⁷⁾ [그림3]은 뒤표지이다. 장정된 부분에 세로줄로 발행과 인쇄에 관한 정보가 있다. 이곳에 인쇄 연월일, 발행 연월일, 편집 겸 발행인, 인쇄자와 인쇄소를 기록하였다. “大正 六年 十二月 二十九日 印刷. 大正 七年 一月 一日 發行”, “編輯 兼 發行人 京城鐘路 美國聖書公會 白瑞巖”,⁸⁾ “印刷者 京城府 平洞 三十番地”⁹⁾ 郭實(寅?)變,¹⁰⁾ 印刷所 京城鐘路 中央基督教青年會 印刷科¹¹⁾라고 표기하였다. 장정된 반대 부분에 세로 한 줄로 “發行所 京城鐘

5) 편집자에 대해서는 정혜경의 앞의 논문에 자세하게 조사되어 있다.

6) The Subscription Price of the Korea Magazine is Four Yen, or Two Dollars a years, postpaid, to any part of the world. Remittances may be sent by Draft, Money Order, or Personal Check.

가격은 4엔(2달러)로 시작하지만 1918년 10월에 반가죽정장으로 바뀌면서 인건비 상승과 더불어 5엔으로 팔게 된다.

7) 1917년 1월호, 1917년 2월호는 표지 제목 아래에 초교파 독립 월간 선교지라는 뜻의 “AN INDEPENDENT INTERDENOMINATIONAL ILLUSTRATED MISSIONARY MONTHLY”라고 써 놓았지만, 그 이후 호에는 생략되어 있다. 아울러 1917년 1월호에는 인쇄소 표기도 빠져 있다.

8) 백서업은 S.A.BECK의 한글 이름이다.

9) 평동은 강북삼성병원 쪽으로 경희궁 옆을 말한다. 현재 5호선 서대문역부근으로, 강북삼성병원에서 서울시 교육청으로 올라가는 길(송월길)로 교육청 출입구 앞 풍년해물탕 옆 활어회집이 평동 30번지이다.

10) 인쇄자 주소는 같은데, 1918년 6월부터 인쇄자의 이름이 변경된다. 광종섭으로 판독된다.

11) 중앙기독교청년회는 1903년 황성기독교청년회로 시작되었다. 1903년 10월 28일 험버트 제의로 이상재, 윤치호, 김정식, 윤성준 등 중앙교회 자리에 임시사무실을 쓰다가 1908년 종로에 건물을 짓고, 1910년대부터 증축을 위한 재원모금을 진행하여 1914년 실업부 건물 완공하고 가을에는 체육관을 증축하였다. 1914년 3층의 부속건물인 실업부 건물이 완성되자, 1층은 목공부, 2층은 인쇄부와 철공부들 두었으며,

路 美國聖書公會”라는 발행소 표기가 있다.

『The Korea Magazine』 본문 구성은 “광고-목차-삽화-기사-광고”로 되어 있으며,¹²⁾ 잡지의 연번을 Vol.과 No.로 표기하되 Vol.은 연도를 No.는 월호를 나타내었다. 쪽수는 광고, 목차, 삽화를 제외하고 순수한 기사에만 번호를 붙였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Vol. I.과 Vol. II.는 각각 총 1~576쪽이고 Vol. III은 1~192쪽으로 매호 48쪽씩 일정하다고 할 수 있다.¹³⁾ 다만 1917년 9월호와 1917년 10월호는 각각 51쪽, 45쪽으로 둘을 합하여 48쪽의 두 배인 96쪽이다. 발간 상황과 각호의 분량을 보면 아래와 같다.

	VOL.1(1917)	VOL.2(1918)	VOL.3(1919)
NO.1	1~48	1~48	1~48
NO.2	49~96	49~96	49~96

3층은 양화부가 쓰도록 배정하였다. 명칭은 황성기독교청년회의 명칭으로 출발했으나 한일합방, 105인사건이 황성기독교청년회와 연루된 점, 한일YMCA협약관계, 유신회와 공려회계의 반란으로 합병 음모가 추진되다가, 1913년 4월 일본YMCA가 지방 단위로 축소됨에 따라 ‘황성’ 대신에 중앙을 넣어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로 변경되었다.(최인진, 「기독교청년회의 사진교육운동-중앙기독교청년회 학교 사진과 경성사진학강습원을 중심으로」, 『AURA』13, 2005, 16~17쪽)

- 12) 『The Korea Magazine』에 기재된 광고는 유의미하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가 현재 별도의 논고를 마련해 발표를 앞두고 있다.
- 13) 『The Korea Magazine』이 갑자기 간행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Vol. III은 4호에서 끝난다. 물론 여러 가지 나타난 정황으로 볼 때, 폐간이 아니라 중단임을 알 수 있다. 중단의 이유로 기존 연구에서는 3.1운동과 편집자인 계일의 안식년으로 인한 귀국 때문이라 추정했다. 지적인 이유가 타당하다. 그러나 중단에 있어 계일의 안식년은 이미 계획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보다 잡지 간행 중단의 중요한 요인은 다른 데 있다고 보인다. 미국성서공회 철수이다. 1895년에 영국성서공회는 한국지부를 서울 설치하고, 1908년에는 미국성서공회가 서울지부 설치하여 房巨: D.A. Bunker를 책임자로 지명한다. 이후 양 성서공회의 사업 병행에 난점이 있자, 양측 협의 하에 1918년 11월 22일 미국성서공회는 한국의 성서사업을 영국성서공회에게, 영국성서공회는 필리핀의 성서사업을 미국성서공회에 양도하기로 결정한다. 1919년 미국성서공회는 철수함에 따라 한국에서 성경사업은 영국성서공회가 전담하게 된다. 미국 성서공회의 철수는 1919년 4월에 이루어진다. 즉, 편집 겸 발행인, 발행소가 모두 미국성서공회인 『The Korea Magazine』은 후임을 결정 못하고 미국성서공회의 철수와 더불어 같은 달인 1919년 4월에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NO.3	97~144	97~144	97~144
NO.4	145~192	145~192	145~192
NO.5	193~240	193~240	
NO.6	241~288	241~288	
NO.7	289~336	289~336	
NO.8	337~384	337~384	
NO.9	385~435 (51)	385~435	
NO.10	436~480 (45)	436~480	
NO.11	481~528	481~528	
NO.12	529~576	529~576	

이같이 매호 48쪽으로 엮어진 잡지의 기사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었을까? 오늘날의 잡지 는 지속적으로 간행된다는 점을 활용하여 몇몇의 연재물들이 매호 일정한 란을 메우고 있다. 『The Korea Magazine』 그러하다. 연도 구분 없이 총호를 살펴본 결과 7개의 연재물들이 있었다.

연재물 제목	연재기간	연재된 호수분
OLD KOREAN STORIES	1917.1~1918.10	4
KOREA'S NOTED WOMEN	1917.1~1917.10	8
BLAZING THE TRAIL	1917.1~1918.6	19
CHOON-YANG	1917.9~1918.7	11
THE KOREAN ENVOY'S JOURNEY TO PEKING IN 1712	1918.7~1919.4	10
THE CRIMSON DAWN	1818.8~1991.4	9
ANCIENT KOREAN REMAINS	1818.8~1919.3	6

이의 일련번호가 없어 딱히 연재물이라 지칭할 수는 없으나, 연재 성격을 띠는 한국어 관련 기사를 22회 싣고 있다. 연재물 「OLD KOREAN STORIES:

오랜 한국 이야기」는 야담이나 전에 실려 있는 한국 문헌 설화의 인물과 신이한 이야기 13편을 4개호에 수록했고, <CHOON-YANG:춘양>은 이해조의 <옥중화>을 번역한 것으로¹⁴⁾ 11개월 동안 24회를 연재했으며, 「THE KOREAN ENVOY'S JOURNEY TO PEKING IN 1712」는¹⁵⁾ 김창엽의 <老稼齋燕行錄>으로 10호에 나눠 실었다. 「BLAZING THE TRAIL:순교자의 길을 걸으며」는 Noble이 자신의 선교 체험을 재구성한 것이고, 이 연재 이후 한국인의 삶과 특성을 담아 연재물로 다시 쓴 것이 「THE CRIMSON DAWN:환히 밝아 오는 붉은 하늘」이다.¹⁶⁾ 그리고 한국의 고대 유적지를 소개하고 있는 「ANCIENT KOREAN REMAINS:한국의 유적지」가 있다. 선교 사업에 관한 것인 「순교자의 길을 걸으며」와 「환히 밝아 오는 붉은 하늘」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에 관련된 것이다. 「오랜 한국 이야기」, 한국 소설 <옥중화>, 기행문적 성격인 <노가재연행록>, 「한국에서 이름난 여성들」 그리고 「한국의 유적지」까지 말이다.

이들 모든 연재물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지는 않는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별적인 연재물들은 각각 기획 목적과 의도가 다르다. 무엇보다도 연재물 가운데 한국과 관련된 것에 관심을 두고자 한다. 한국에 관련된 것일지라도 한국적인 것에 대한 단순한 번역물이 아니라, 글쓴이의 선택, 견해, 인지가 드러난 연재물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KOREA'S NOTED WOMEN: 한국에서 이름난 여성들」¹⁷⁾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이름난 여성들」은 과연 어떤 글일까. 이 연재물의 제

14) Translated from the korean <춘향전>이라고 했지만, 이해조의 신소설 <옥중화> 번역이다.

15) 1918년 9월호부터는 ‘in 1712’를 생략하고 ‘THE KOREAN ENJOY'S JOURNEY TO PEKING’라고만 표기했다.

16) 정혜경, 앞의 논문, 127쪽.

17) 서재영은 ‘한국에서 이름난 여성들’ 정혜경은 ‘한국의 주목할 만한 여성’이라고 번역하였다. 1925년 6월 6일~7월 9일까지 조선일보에 32회에 걸쳐 연재된 「력사상 이름난 여성」이라는 연재물이 실린 사실이 있다. 연재된 내용으로 보나, 다소 뒤 시기이지만 연재물에 사용된 제목 사례로 보나 「한국에서 이름난 여성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후 「KOREA'S NOTED WOMEN」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영어 원문을 밝히지 않고 「한국에서 이름난 여성들」이라고 번역하여 지칭하였다.

목만 보면, 한국여성을 소개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모두 중국 여인들이다. 한국여성이 아닌 중국여성을 왜 소개하고 있을까. 당시 그들은 스스로 “중국여성들이 왜 한국인에게 이름나 있는가. 한국인의 인식에 이 여성들이 어떻게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을 던졌고, 이 물음에 『The Korea Magazine』은 「한국에서 이름난 여성들」이라는 연재물로 답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이름난 여성들」 연재물은 그들이 한국인에 대해, 한국인의 문화적 요소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특징을 보였는지 고찰하기에 요긴한 자료이다. 이에 「한국에서 이름난 여성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III. 「KOREA'S NOTED WOMEN」의 연재 이유

「KOREA'S NOTED WOMEN」 연재물은 8개호에 나뉘 실고 있다. 자세한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목	글쓴이	게재연호	쪽
I. Yo-WHA-SI	STUDENT OF THE ORIENT	1917.1	26~28
II. A-whang and Yu-yung		1917.2	60~63
III Tai-im and Tai-sa		1917.4	154~156
IV. Wang So Koon		1917.5	218~219
V. Su Wang Mo		1917.7	295~297
VI. CONTINUED		1917.8	345~347
VII. SU-SI		1917.9	389~390
VIII. TAK MOON-KOON		1917.10	438~439

1917년 8월호가 CONTINUED로 되어 있어 7개의 기사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만, 8월호 기사 내용이 7월호 <Su Wang Mo:서왕모>를 이어 쓴

것이 아니라, <양귀비Yang Kwi-pi:양귀비>에 관한 글이다. 즉 8회에 걸쳐 <여외씨>, <아황과 여영>, <태임과 태사>, <왕소군>, <서왕모>, <양귀비>, <서시>, <탁문군> 등 10명의 여인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이 연재 기사들은 누가 작성한 것일까? 5편은 글쓴이로 “STUDENT OF THE ORIENT:동양 연구자”라 밝히고 있으나 3편은 글쓴이 표기가 없다.¹⁸⁾ 기존 연구에서 이들 연재 기사의 글쓴이를 게일이라고 추정할 바 있으나 현재까지 확실한 근거는 없다.¹⁹⁾ 다만 이 연재물의 글쓴이가 자신을 노출한 곳이 두 곳이 있는데, <아황과 여영>에 대해 김씨에게 물어보는 장면과 <서왕모>의 생몰연대를 확인하고자 글쓴이가 정리해 둔 노트에서 중국 왕력을 확인할 때 일 뿐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글쓴이를 확정할 수 있는 근거가 발견될 때까지 동양의 연구자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연재물은 어디서 소재를 가져온 것일까?

Korea, too, has her list of famous women, and yet not one among them a Korean. Her heroines have come down to her through the Sacred Books of the East ; some of them by the medium of myth and folk-tale (중략) The writer proposes to give in the MAGAZINE twelve of the most distinguished, with the historical references and legends associated with them.

위의 인용문은 1917년 1월호의 실린 내용으로 연재물 시작에 앞선 글쓴이의 머리말이다.²⁰⁾ 한국에서 이름난 여성들 가운데 한 명도 한국인이 아니다.

18) 기존 논의에서 8편 모두 STUDENT OF THE ORIENT라고 했으나, 3편은 저자를 밝혀놓지 않았다.

19) 김봉희와 서재영은 「한국에서 이름난 여성들」을 게일의 기사문으로 보았다. 1917년 9월부터 번역된 <춘향>에서 언급되는 여인들이 「한국에서 이름난 여성들」에서 언급된 여인들과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게일이 번역한 <CHOON-YANG>과 「한국에서 이름난 여성들」에서의 ‘Choon-hyang’의 표기법이 다르다. ‘Su-Si:서시’와 ‘Wang So Koon:왕소군’도, <Choon-hyang>에서는 각각 ‘Sosee’와, ‘Wang Sogun’으로 표기하였다. 이처럼 표기가 다른 것으로 보아, 연재 글쓴이를 게일로 확정짓기를 유보해야 할 것이다.

20) 『The Korea Magazine』 1917년 1월호, 26쪽.

그런데 그 여성들의 이야기는 동양의 경서, 신화, 민담을 통해 전래되고 있다. 연재의 글쓴이는 이들 여성들을 연상시키는 역사서와 전설을 다루겠노라고 한다. 주목할 바는 ‘historical references’이다. 이는 구비로 전승되는 것이 아닌 문헌적 전승에 기반을 두고 전달하겠다는 의지이다. 이로 보면 글쓴이는 전설과 역사서에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춘 사람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왜 이들 역사적 참고서와 전설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중국 여성들을 한국에서 이름난 여인으로 지목하고 연재했는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they have all come to be definitely recorded and live as truly here in the homes of the people, as do the Jewish women in the Anglo-Saxon world.²¹⁾

These are not Korean women and yet they occupy the soul of this people as no women of their own race ever do.²²⁾

위의 인용문 역시 머리말에 있는 내용이다. 인용문에 의하면 “이 여성들이 뚜렷이 기억되고 있고, [한국]사람의 집에 진짜로 살아 있는 것처럼”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의 어떤 여성들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 한국 민족의 영혼을 점유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글쓴이는 비록 중국여성일지라도, 한국인에게 마치 현재 지금 살아 있는 것처럼 한국 민족의 영혼에 영향을 끼치는 여성들이기 때문에 이들 여성을 「한국에서 이름난 여성들」로서 연재한 것이다.

이들 여성이 한국에서 왜 이름나게 되었고, 왜 유명하게 되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열렬함이다. 한국에서 이름난 여성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기술했는지 다음을 보자.

There is another Chinese woman of famous name and note, called Wang So-koon, whom Koreans not only know, but sing and talk of

21) 『The Korea Magazine』 1917년 1월호, 26쪽

22) 『The Korea Magazine』 1917년 2월호, 59쪽.

as one of the most beautiful fairies that ever visited the earth. They have learned of her 쪽 the songs of the Tang Kingdom that are taught the children at school.

위의 인용문은 <왕소군>에 기재된 내용이다. 한국 사람들은 왕소군을 지구에서 살았던 가장 아름다운 요정과 같은 사람으로 칭송하는데, 한국인들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웠던 당시(唐詩)를 통해 왕소군을 알게 되었다. 즉 글 쓰이는 한국인은 학습으로 왕소군이라는 여성을 알게 되었고, 왕소군이라는 여성에 대해 익숙해져 왔다고 보고 있다.

“Su-wang Mo, Su-wang Mo!” is one of the names passed from lip to lip in Korea, for all know it and repeat it, as though the owner had, within the memory of man, lived a life in the heart of the peninsula.

위의 인용문은 <서왕모> 내용의 일부분이다. 한국에서 회자되는데, 마치 서왕모가 한반도의 심장부에 살았던 것처럼 한국인 누구나 알고 이름을 되뇌인다고 기술한다.

Korea, forgetful of the fair faces that have adorned her own court, speaks still of Yang Kwi-pi as though she were wholly hers and had lived but yesterday.

위의 인용문은 <양귀비>의 기사 내용이다. 그녀의 얼굴을 모르는 한국인이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양귀비가 어제 살았던 것처럼 온전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서술한다. 이처럼 어려서부터 학습하고, 되뇌이고, 현재 살아 있는 것처럼 여기는 이 여성들에 대한 열렬함은 한국 여성이 이들 여성을 닮고 싶어 한다는 사실로 설명한다.

The famous Yool-gok of Korea, whose tablet stands No52 on the

east side of the Master, is really Korea's greatest sage. He, like the Chinese Master, was taught by his mother, a highly gifted woman, skilled as a writer, a penman, an artist. To-day her paintings adorn the East Gate Museum and her name stands high upon Korea's roll of honour. Her pen-name was Sa-im Tang which might be rendered "My teacher is T'ai-im."

위의 인용문은 <태임과 태사> 마지막 부분에 서술된 문장이다. 천부적 재능을 가진 작가이고 서예가이며 미술가였던 신사임당은 한국에서 뛰어난 현인으로 칭송받는 율곡의 어머니인데, 그녀의 호 "사임당"은 "나의 선생님은 태임"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한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이 연재된 이유는 한국인들 사이에 이 여성들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한국인인 것처럼 존재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살아 있는 존재로서 각인되고 인식될 뿐만 아니라 한국인이 닮고 싶은, 닮아야 하는 삶의 모범으로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연재의 글쓴이는 이들 이름난 여성들의 영향력이 한국과 한국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까지 두루 미치고 있다고 서술한다.

- ①여와씨,- 빛을 만들었다는 것. 이브와 같다.
- ②아황과 여영-대단한 충의를 보였다는 것.
- ③태임과 태사-검소함 그리고 고대 중국을 개선시킨 것. 사람을 선하게 만든 것.

동아시아를 움직이는 도덕의 힘의 초석자들.

- ④왕소군-아름다운 요정. 예쁜 얼굴, 깊은 슬픔. 아시아의 정신
- ⑤서왕모-여신. 한국인들에게 영혼이 깃든 아름다운 낙원 안락의 공간을 제공함.
- ⑥양귀비-얼굴을 모르는데도 살아있음. 좋게 여기지는 않지만 아름답게 여김.
- ⑦서시-아름답지만 슬픔의 정서.
- ⑧탁문군-모든 법을 넘어서서 이를 수 있는 사랑의 힘. 여성들의 위안이자

위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글쓴이는 각 편 여성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평가를 위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 여와씨는 빛을 만든 존재로 서양의 이브와 같다고 본다. 아황과 여영은 순임금에 대한 충의를 지녔던 인물로, 태임 태사는 사람을 선하게 하는 힘을 지닌 여인들로, 서왕모는 한국인에게 아름다운 낙원과 안락의 공간을 제공하는 인물로, 탁문군은 모든 계약을 넘어서 사랑을 이루는 여인으로 기리고 있다. 왕소군, 서시, 양귀비는 아름다운 자태와 용모를 지닌 여인으로서 유명하다고 기술한다. 이 가운데 태임과 태사가 중국, 한국을 넘어 아시아에까지 미친 파급력을 언급한 부분을 보자.

-the divine ideal for all the daughters of East Asia.

-Asia lacks words to tell her goodness

-To these two women Asia owes more than even her unbounded admiration can pay.

-make the greatest moral force that has touched East Asia.

태임이 숭고한 덕행의 여성으로 동아시아 모든 딸들의 신성한 이상이 되었다는 것, 아시아에서는 태사의 선함을 말할 수 있는 단어들이 부족하다는 점, 아시아 사람들은 태임과 태사에게 무한한 칭송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빛을 지고 있다는 것, 태임과 태사가 동아시아를 움직이는 도덕의 초석이 되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태임과 태사의 기사 분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이 아시아에 미친 영향력을 반복적으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외에도 <아황과 여영>에서는 2회,²³⁾ <서시> 3회²⁴⁾, <서왕모>,²⁵⁾ <왕소군>,²⁶⁾

23) in the Book of History can be read through in a few minutes and yet it constitutes a text for endless counsels to East Asia; so deep is its hold upon the women of Asia.

24) The weaknesses of Asia are seen and known through the group of women that constitute her goddesses.; It was one of those endless feuds that have so constantly beset the world of Asia.; matters that all come close to the heart of Asia.

<탁문군>27)은 각각 1회씩 나타난다. 이들이 아시아의 정신을 대표하고, 아시아 여성의 기치를 올렸다는 서술이다.

이와 같이 글쓴이는 이 여성들의 영향력이 한국에서만 파급되는 특수적 상황이 아니라, 동아시아까지 보편적 타당성을 얻고 있음을 은연중에 내비친 것이다. 여와를 비롯한 중국의 여인들이 왜 한국에서 이름나게 되었는지, 한국적 맥락 속에서 한국인의 의식 속에서 어떻게 깊이 뿌리 박혀 있었는지 서양인인 글쓴이는 온전히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때문에 동아시아라는 문화적 기반 위에서 이름난 여성이 한국에서도 유명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⁸⁾

요컨대, 「한국에서 이름난 여성들」은 중국여성이지만, 한국인들의 마음 속에 현재에 여전히 살아 있는 존재들 즉 한국인의 의식 속에 있고, 한국인이 닮고 싶어 하고, 한국인이 항상 언급하는 여성들이다. 연재물의 글쓴이는 중국 여성이 왜 한국인에게 열렬한 지지와 마음을 차지했을까에 대한 해답을 동아시아적 문화 기반에서 찾았던 것이다. 이들 중국 여성들이 동아시아라는 기반 위에서 이름났던 까닭에 한국에서 역시 유명하고 이름난 존재로 살아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연재했던 것이다.

IV. 연재 기사문의 특징

10명의 중국 여성들을 통해 한국을 이해하고자 했던 「한국에서 이름난 여성들」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었는지를 살펴보겠다. 표현은 글쓴이가 대상에 대해 얼마나 이해했는가의 지표가 된다. 사물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그

25) The word West had long had a mystic meaning in East Asia.

26) these lie very close to the soul of Asia.

27) She has been the comfort and solace of every misguided girl in East Asia for 2000 years

28) 이러한 신사임당에 대한 설명에 대해 “선교사들의 이같은 발상은 동아시아 문화권 안에서 한국인의 삶과 태도, 그리고 문화 현상을 이해한 데서 비롯된다”(정혜경, 앞의 논문, 139쪽)라고 평했는데 그 구체적인 양상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평가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언어 표현에는 상응 관계가 있기 마련이다. 자기가 얼마나 인식했는가에 따라 원활한 소통 또한 가능해진다. 이 장에서는 서양인으로 한국인의 의식을 얼마만큼 이해했을까. 이름난 여성들이 한국인 사이에서 회자되고 연호되는 것이 이상하지는 않았을까. 정말 이해했을까라는 회의에서 출발한 것으로, 연재 기사의 표현상의 특징을 통해 한국인에 대해 그리고 한국인의 문화적 요소를 어떻게 수용하고 인식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생략과 첨언을 통한 자기식 이해

「한국에서 이름난 여성들」은 한국 문헌 혹은 중국 문헌을 영어로 재기술한 것이다. 그러기에 원텍스트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는가, 생략된 부분과 추가된 부분이 있는가는 글쓴이의 인식과 직결된다.

If you drop the si which is honourific, and say simply Yo-wha its
sound is not unlike that of the Hebrew H'a-wa which is Eve

위의 인용문은 <여와씨>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이다. “씨”를 빼고 단 순하게 말하면 여와라는 소리는 히브리어로 하와 즉 이브라는 소리와 흡사하다고 한다. 이밖에 글쓴이는 여성들이 쓰는 빗을 만든 최초의 사람이 여와라는 것을 부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여와는 인간 창조와 구원의 신으로 간주된다. 글쓴이는 여와에 관해 구원의 신에 대한 이야기는 기록하고 있으나, 인간 창조와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²⁹⁾ ‘여와보천’의 이야기를 알았다면, ‘인류창조’의 이야기를 몰랐을

29) <풍속통의>에 의하면 세상 모든 것이 처음 생겨난 후 여와는 정월 초하루에 닭을, 이틀째에 개를, 사흘째에 양을, 나흘째는 돼지를, 닷새째는 소를, 엿새째는 말을, 이레째는 사람을 만들고 여드레째 일반 곡식을, 아흐레째 조를, 열흘째에 보리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레째 여와가 황토를 뭉쳐 사람을 하나하나 만들고 있었는데, 만들다 싫증이 난 그녀는 좀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 한 가지 피를 생각해 뒀고 물렁물렁하게 반죽이 잘 된 황토 속에 거칠게 꼬인 새끼를 집어넣고 잘 휘저음 다음 새끼를 획 잡아 당겼다. 그러자 그 새끼 끝에서 딱딱 지상에 떨어져 내리는 진흙덩이들이 모두 인간이 되었다. 귀찮다고 만든 인간은 악인이 되고, 잘 만든 인간은 선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리 만무하다.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해 만들어진 잡지에서, 그리고 그들의 독자들도 또한 기독교인이었을 것을 감안할 때, 천지창조는 하느님이 영역이었기에 여와가 인간을 창조했다는 사실은 신화일망정 용납할 수 없었던 부분이다. 이는 의도적인 배제가 아닐 수 없다.

반면, 서양인에 완성된 업적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듯이 침언하고 있다.

Sir John Davis, Governor of Hong-kong in 1844, translated the story of So-koon from a Chinese drama called The Sorrows of Ham.

위의 인용문은 <왕소군>에 있는 내용이다. 왕소군 묘의 잔디가 사시사철 무성하다는 전설을 이야기 한 후, 글쓴이는 “1844년 홍콩 통치자였던 존 다비스는³⁰⁾ “한의 슬픔(한궁추)”라는 원작곡을 번역했다“고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와 같이 알고 있는 사실을 생략을 통해 무시하거나, 원텍스트에 없는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면서 자기 인식의 범주에서 이해하려는 흔적을 엿볼 수 있다.

2. 비교를 통한 납득(納得)

글쓴이는 서양 문화에 기반을 둔 사람이다. 독자 또한 글쓴이와 다르지 않다. 독자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방법은 비교와 비유일 것이다. 이해의 첫 단계이기도 하다. 이 연재의 글쓴이 역시 서양의 문화적 기반을 토대로 비교와 비유적인 설명을 빈번하게 활용한다.

30) John Francis Davis: Sir John Francis Davis, 1st Baronet KCB (Chinese Translated Name: 戴維斯 or the obsolete term 參核士) (16 July 1795 – 13 November 1890) was a British Diplomat, Sinologist, and the Second Governor of Hong Kong. He was the son of Samuel Davis and nephew to William Thomas Mercer (later Colonial Secretary of Hong Kong). 1795년 태어나 1890년에 영국에서 죽었다. 홍콩 2번째 장관으로 1844 8월부터 1848년 3월까지 근무했고, 재자가인 소설 <호구전>을 번역하기도 했다.

In the Western world many women have attained to places of highest honour, where their name will endure as long as the world stands ; and yet if we were to record, say twelve of the most distinguished, no English, French or American woman would appear, not even Queen Elizabeth, nor Joan of Arc, nor Pocahontas. They would doubtless be Bible names, beginning with Eve and running down to a group of Marys. (중략) they have all come to be definitely recorded and live as truly here in the homes of the people, as do the Jewish women in the Anglo-Saxon world³¹⁾

위의 인용문은 글쓴이가 한국에서 이름난 여성들을 언급하기에 앞서 서양에서 이름난 여성들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자문(自問)한다. 당연히 서양에서는 엘리자베스 여성도 아닌, 잔다르크도 아닌, 포카혼타스 조차도 아닌 성경 속의 여인 즉 태초의 이브로부터 내려오는 마리아를 포함한 여인들이라 한다. 한국에서의 이름난 여성들 역시 역사서와 전설 민담으로 전해 내려오는 여성들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서양의 상황을 비교한 것이다. 또한 한국인들 마음 속에 이들 여성이 살아 있는 것처럼, 유대인의 여성이 앵글로색슨족의 마음 속에 살고 있는 것에 비교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Greater than the Queen of Sheba, she brought with her the fruits of immortality that she placed before the king.³²⁾

Before the days of Saxons and Danes when China was in all its ancient glory, there lived a famous woman named Yang Kwi-pi or Princess Yang, of surpassing beauty(하략)³³⁾

The wisdom of Solomon, the gentle traits of King Arthur and the

31) 『The Korea Magazine』 1917년 1월호, 26쪽

32) 『The Korea Magazine』 1917년 7월호, 300쪽

33) 『The Korea Magazine』 1917년 8월호, 345쪽

faultless rule of King Alfred the Great all pale before these two masters of ancient China.³⁴⁾

Among the Emperor's companions was a Turk called As Lok-san, a fat man, fatter than G. K. Chesterton and much more famous in his day

위의 네 개의 인용문은 모두 서양과의 비교를 통해 이해를 도모하는 부분들이다. 서왕모를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한 성경의 여인 시바로 비교하였고, 양귀비가 살았던 시대를 설명하기 위해 섹슨족과 텐족이 존재하기 이전이라는 설명을 곁들인다. 여성들의 서술에서 뿐만이 아니다. “솔로몬의 지혜, 아서의 온화한 특성, 알프레도왕의 완전무결함 같이 고대 중국의 두 군주가 그러하다”라고 임금과 순임금의 인물을 설명한다든가, 안록산을 설명하면서 “똥똥하기로 Gilbert Keith Chesterton보다 더 똥똥하”라고 설명하는 것이 그것이다.³⁵⁾ 이처럼 서양의 시대와 인물을 비교를 함으로서 글쓴이가 한국인의 인식과 「한국에서 이름난 여성들」에 열망과 열호에 대해 이해하고 인정했음을 보여준다.

3. 질문을 통한 인용(認容)

그렇다고 연재물의 글쓴이는 「한국에서 이름난 여성들」에 대해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다. 자신의 처지와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문면에서 드러난다. 특히 이런 부분은 “I(나)”라는 일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면서 자신을 노출하고 있다.

I ask my friend Kim what they did that was so wonderfully great. His reply is that they were entirely given up to their husband as good wives should be. This self-sacrifice may be good for the wife, but I question whether it is good for Kim.(중략) I can get from Kim no

34) 『The Korea Magazine』 1917년 2월호, 60쪽

35) Gilbert Keith Chesterton은 (1874년 5월 29일~1936년 6월 14일) 영국의 작가이다.

other light than that they were wonderfully faithful, which fact I surely admit. They had no vote ; they hadn't even the shadow of a choice, and yet Asia, especially korea, says, "A-whang, A-whang, Yu-yung, Yu-yung."³⁶⁾

위의 인용문은 <아황과 여영> 기사의 일부이다. 아황과 여영이 자신의 뜻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둘 다 순 임금의 아내가 된 상황에 대해 글쓴이는 이해 불가하다. 그들의 권리나 인격, 개인적 선택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황 일뿐더러 그러한 아황과 여영이 왜 위대한지 이해되지 않는다. 글쓴이는 자신의 친구 김씨에게 물어보지만 김씨는 남편을 위해 순절한 행동 때문이라 답한다. 그러나 그의 대답을 통해서도 이해하지 못한다. 글쓴이가 이해한 것은 아황과 여영이 멋지고 충실하다는 것 이외 더 이상 이해할 수 없었다. 다만 한국인이 아황과 여영을 말끝마다 부르짖는 상황만은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뿐이다.

<서왕모>에 대한 기사에서도 역시 그러하다. 서왕모가 언제 살았냐는 질문에 김씨는 주목왕 혹은 한무제 때라고 답하자, 글쓴이는 자신의 공책을 뒤적여 중국의 왕력을 찾는다. 두 왕의 시기 차이는 1000년이 넘는다. 글쓴이의 입장으로 이해되지 않아 서왕모가 1000년 동안 불멸의 인간일 수 있겠느냐 반문하자,³⁷⁾ 김씨는 서왕모가 여신이기 때문에 늙지도 죽지도 않는다고

36) 나는 내 친구인 김씨에게 그들이 한 놀랍도록 위대한 일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의 대답은 착한 아내가 의당 그래야 하듯 남편에게 온힘을 다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러한 자기희생이 아내에게 좋은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이 김씨에게도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다.(중략)내가 확실하게 인정하는 사실 즉 그들은 멋지고 충실하다라는 것 이외 김에게서 다른 견식을 얻을 수 없었다. 그녀들은 표결권이 없었고, 그녀들은 조금의 선택도 없었다. 그러나 아시아, 특히 한국에서는 "아황, 아황, 여영 여영"을 말한다.(『The Korea Magazine』 1917년 2월호, 60-61쪽)

37) Who is Su-wang Mo ?" I ask. Kim says she is a fairy. "When did she live ?" "In the days of King Choo-mok, and also Han Moo-je." I look these up in my handbook and find that Choo-mok reigned from 1001 to 946 B.C ; and Han Moo-je from 140 to 86 B.C. Amazed at the contradiction of time I ask, "These two lived nearly a thousand years apart, how could Su-wang Mo meet and talk over such a vast eternity?"(『The Korea Magazine』 1917년 7월호, 295쪽)

답변한다. 그러나 1000년 이상의 불멸불사의 서왕모를 과학적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글쓴이의 잣대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다만, 서왕모에서 “西”라는 단어가 오래되었다는 것, 동양에서는 신비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서왕모를 용인했을 뿐이다.

이뿐만 아니다. 서시에 대해서 글쓴이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다. “서시는 분명히 다른 사람의 유골 위에서 생겨난 헛된 아름다움일 뿐인데, 아버지의 복수 같은 문제들을 아시아인들은 모두 잊어버렸단 말인가?”라고 반문하면서도 글쓴이는 “어쨌든 서시는 한국인에게 대단한 여성의 한 명으로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다”³⁸⁾고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이처럼 글쓴이의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은 김씨를 통해 이해를 구하려 했다. 그러나 김씨의 답변이 충분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의문을 가졌던 사실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상황이나 정황을 통해 인정할 뿐이었다.

4. 문학 작품을 통한 조망(眺望)

「한국에서 이름난 여성들」에는 문학 작품이 삽입되어 있다. <태사, 태임>에는 『시경(詩經)』의 <관저(관雎)>와 <갈담(葛覃)>이, <아황과 영영>에는 <춘향전>이, <왕소군>에는 <소군원(昭君怨)>과 상건(常建:708-765)이 지은 <소군묘(昭君墓)>라는 당시(唐詩)가, <서왕모>에는 <구운몽>이 인용되었다. 두 작품은 중국 작품이고, 두 작품은 한국의 고전소설이다.

서왕모가 한국인에게 영혼의 열망이 깃든 아름다운 낙원을, 동양에서 안락의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을 글쓴이는 알고 있었다.

where they never die ; where delightful fruits are given in
abundance, and where strains of sweet music fill the air

38) Evidently the empty beauty, the paternal feud, the rising on the ashes of another, are matters that all come close to the heart of Asia. Whatever it be, Su-si is one of Korea's great women still known of all people(『The Korea Magazine』 1917년 9월호, 340쪽)

결코 죽지 않고, 즐거움의 열매로 풍요롭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가득찬 곳! 그곳은 서왕모가 사는 요지연이다. 그러나 이런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했다. 글쓴이는 <구운몽>을 통해 이해하려고 했고, 독자를 이해시키려 했다. <구운몽>의 인용 부분은 양창곡이 거문고로 정경패를 희롱한 뒷이야기로, 정경패가 가춘운에게 자신의 치욕을 씻어달라고 부탁하자, 가춘운이 거짓 선녀 행세를 하며 양창곡에게 전생인연에 대해 이야기 하는 부분이다.

I am one of the waiting maids of the Western Queen Mother and your lordship is an officer of the Red Palace of God. Once when God prepared a banquet in honour of the Queen Mother, and there were many officers of the genii present, your lordship thoughtlessly singled me out, and tossed me some fruit of the fairies in a playful way

위의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미궁” “시녀”, “선관” “연회” “선과” “희롱” “요지”라는 단어들을 통해, 서왕모가 사는 낙원, 안락의 공간을 보여 준다. 글쓴이는 설명이 아닌 문학 작품을 통해 낙원을 꿈꾸게 한 서왕모를 이해한 것이다.

이외에도 문학작품은 아니지만 ‘효빈(效顰)’이나 ‘와신상담(臥薪嘗膽)’과 같은 고사성어를 활용하여 한국인들이 이들 이름난 여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고자 한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이사과 같이, 「한국에서 이름난 여성들」 연재물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은 생략과 첨언, 비교의 방법, 대화의 활용, 문학 작품을 활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의 특징은 글쓴이의 인식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양인의 인식과 한국인의 인식 사이의 충돌과 갈등, 소통과 이해가 면면히 드러나고 있다.³⁹⁾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비교를 통해 납득하려 했고, 이해하지 못함에도 받아들이려 노력했고, 문학작품을 통해 문화적 맥락

39) 이같은 특징이 『The Korea Magazine』의 전체적인 특징이라고 선불리 결론을 내리지는 않는다. 잡지가 갖는 기본적 지향과 각 연재물에 대한 글쓴이가 다룬뿐더러 목적성에서도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름난 여성들」에서 나타난 특징은 전체 잡지의 성향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에서 조망하려는 인식의 과정이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V. 맺는말

『The Korea Magazine』은 1917년 1월부터 1919년 4월까지 총 28회를 발간한 월간 영문 잡지이다. 48쪽으로 엮어진 잡지의 기사 내용은 7개의 연재물들이 매호 일정한 란을 메우고 있다. 연재물들은 선교와 관련된 것 이외에는 5개의 연재물이 한국에 관련된 것이다. 그 가운데 주목을 끄는 연재물이 있다. 「한국에서 이름난 여성들」인데, 모두 중국 여인들이다.

「한국에서 이름난 여성들」은 8회에 걸쳐 여와씨, 아황과 여영, 태임과 태사, 왕소군, 서왕모, 양귀비, 서시, 탁문군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이들 여성은 역사적 문헌과 전설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중국 여성들이다. 이들이 「한국에서 이름난 여성들」로 연재된 이유는, 지금 살아 있는 것처럼 한국 민족의 영혼에 영향을 끼치는 여성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들 이름난 여성들은 한국과 한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까지 그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연재물의 글쓴이는 중국 여성이 왜 한국인에게 열렬한 지지와 마음을 얻었을까에 대한 해답을 동아시아적 문화 기반에서 찾았던 것이다. 이들 중국 여성들이 동아시아라는 기반 위에서 이름났던 까닭에 한국에서 역시 유명하고 이름난 존재로 살아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연재했던 것이라 하겠다.

「한국에서 이름난 여성들」에 기술된 표현상의 특징을 면밀히 살펴보면 글쓴이의 한국에 대한 이해도를 알 수 있다. 사물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그 언어 표현에는 상응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연재물 기사에는 의도적인 생략과 첨언을 통해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서양 문화와의 비교를 통해 납득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인정하고 받아들여, 문학 작품을 활용하여 다각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참고 문헌

- 게일 제임스, 『코리언 스케치』, 장문평 옮김, 현암사, 1970.
- 김봉희, 「게일의 한국학 저술활동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3, 1988.
- _____, 『한국 기독교 문서 간행사 연구』, 1987.
- 김상민, 「개화일제기 한국 관련 서양 문헌에 나타난 한국 인식 양태 연구」, 명지대 박사학위논문, 2007.
- 김택호, 「근대 초기 서양인이 쓴 한국 관련 소설: 윌리엄 아서 노블의 Ewa-A Tale of Korea를 중심으로」, 『국제한국학연구』5, 2011.
- 노블, 『노블일지』, 강선미·양준 역, 이마고, 2010.
- 류대영, 「국내 발간 영문 잡지를 통해서 본 서구인의 한국 종교 이해 1890~1940」, 『한국기독교와 역사』 26, 2007.
- 리 로즈, 『미국 북장로교 한국 선교회사』1, 최재건 옮김, 연세대출판부, 2009.
- 서재영, 「19세기말 ~20세기초 개신교 선교사들의 영문잡지에 나타난 한국여성 인식」,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14.
- 송민규, 「19세기 서양 선교사가 본 한국시」, 『The Korean Repository』의 기사 「Korean poetry」를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9.
- 오윤선, 「<춘향전> 영역본의 고찰」, 『관소리연구』23, 2007.
- _____, 『한국 고소설 영역본으로의 초대』, 지문당, 2008.
- 유영익, 「게일의 생애와 그의 선교사업에 대한 연구」, 『캐나다연구』2, 1990.
- 윤치호, 김상태 편, 『윤치호일기』, 역사비평사, 2001.
- 이상현, 『한국 고전번역가의 초상: 게일의 고전학 담론과 고소설 번역의 지평』, 소명출판, 2013.
- 전성운, 「영문판 한국문학(사)의 서술 양상과 특징」, 『어문논집』53, 2013.
- 정혜경, 「한국 고전문학 학술서 영역의 실제와 방향」, 『국제어문연구』58, 2013.
- _____, 「『The Korea Magazine』의 출판 상황과 문학적 관심」, 『우리어문연구』 50, 2014.
- 조지 길모어, 『서울 풍물지』, 신복룡 역주, 문당, 1999.
- 최윤희, 「이인진류 영역 양상과 번역 태도」, 『동양고전연구』49, 2012.
- _____, 「한국 고전소설 작품명의 영문 표기 고찰」, 『우리문학연구』40, 2013.
- 최인진, 「기독교청년회의 사진교육운동-중앙기독교청년회 학교 사진과 경성사진학강습 원을 중심으로」, 『AURA』13, 2005
- 헐버트, 『대한제국멸망사』, 신복룡 역주, 집문당, 1999.

홍순원 외, 『한국영어신문사』,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홍이섭, 「구미인의 한국 여성관: 19세기 한국관계 歐文 문헌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여성 연구』1, 1962.

『The Korea Magazine』 vol. I ~ III, 서울, 미국성서공회, 1917~1919.

SHAVIT, David, 「Noble, Harold Joyce(1903-1953)」, 『The United States in Asia: A Historical Dictionary』. Greenwood Press, 1990.

❖ ABSTRACT

Study on was serialized in The Korea Magazine 「KOREA'S NOTED WOMEN」

Choi, yun-hi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Korea Magazine. The magazine has a series. One of them is KOREA'S NOTED WOMEN. This is the women who are all Chinese women. They are Yo-WHA-SI(여와씨), A-WHANG, YU-YUNG(아황과 여영), T'AI-IM AND T'AI-SA(태임과 태사), WANG SO-KOON(왕소군), Su Wang Mo(서왕모), Yang Kwi-pi(양귀비), SU-SI(서시), TAK MOON-KOON(탁문군).

The story of the women in the magazine were studied in a series of articles of reasons. First, it is because the Chinese women living in the hearts of Koreans. Second, the Koreans because these women want to love passionately, and be like. Third, because the Chinese women was also well-known in Korea as well known in East Asia.

Was This series is used in any way. Features shown in the description was investigated. It explains how to understand what they Korea. Deliberately omitted, and were also added. I also used the analogy and comparison. This does not make sense but were accepted. Finally, we fully understand and take advantage of the literature.

Key Words

코리아매거진, 한국에서 이름난 여성들, 연재물, 기사문의 특징, 한국에 대한 인식
The Korea Magazine, KOREA'S NOTED WOMEN, series, Features shown in the description, how to understand what they Korea.

논문접수일: 2014년 11월 20일

심사완료일: 2014년 12월 12일

게재확정일: 2014년 12월 16일